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1. 16.(목)

# 단거리 비즈니스 이동도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세요

-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, 플랫폼사업 신규 허가 심의 의결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.15일(수) 오후 열린 「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\*」에서 신규 사업자(블랙강남모빌리티)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\*\*하였다고 밝혔다.

\* 여객자동차법에 의거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교통 분야 전문가, 소비자 권익보장 관련 종사 경력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('24.5월)

\*\* 기존 사업자와의 차별성 유지 및 서비스 수요 모니터링을 위해 허가대수 조정 등 수정가결

-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, 제도 도입('21.4)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(과파모빌리티, 코엑터스, 레인포컴퍼니, 피플모빌리티)가 허가 받았다.

-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~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,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·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(G80e)을 이용하여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## < 허가 신청사업 개요 >

- (허가대수) 30대(제네시스 G80e)
- (요금제) 월단위 구독 및 최단거리 기반 사전요금확정제
- (주 운행지역)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
- (특화 서비스) 고급차량을 활용하여, 전문직·기업임원·병원방문 등 구독회원 대상 단거리 운송(강남·서초 내부에서만 호출 가능, 외부 도착은 가능)

-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·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,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(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)은 “운송플랫폼을 활용하여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면서,
  - “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,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유인 (044-201-3823)
		담당자	팀 장	노지훈 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	백동현 (044-201-3813)
		담당자	주무관	정상미 (044-201-3816)



## 참고

##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현황

### □ 주요 서비스 내용

- ① (코엑터스) 교통약자, 언어장애인 등 대상 특화 서비스 제공, 휠체어를 탑승한 채 그대로 승차 가능한 차량을 활용하여 서비스
- ② (레인포컴퍼니)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(전속 기사 포함)을 대체하는 고급형 B2B 플랫폼운송 서비스
- ③ (파파모빌리티) 이동약자 동행, 어린이 및 학교·학원 단체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, 휠체어·카시트 제공 등도 지원
- ④ (피플모빌리티)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출·퇴근, 기업 출장, 의전 지원 등 산단과 도심지 이동을 지원하는 B2B 서비스

### □ 허가 현황

구분	코엑터스	레인포컴퍼니	파파모빌리티	피플모빌리티
허가연도	2021	2021	2021	2023
허가대수	100대	220대	200대	30대
특화서비스	교통약자 및 언어 장애인 대상 서비스, 청각장애인 고용	고급형 법인 업무용 의전서비스(B2B)	교통약자, 어린이, 청소년 통학 서비스 제공	산단 입주기업 대상 도심지 이동 서비스(B2B)
주 운행지역	서울, 광명, 부천, 인천	서울, 성남	서울, 인천	안산, 시흥
운영차량	QM6 등	제네시스, 카니발하이리무진 등	카니발, 스타리아 등	스타리아
비고	 	 	 	 